

## 디아스시대의 전제적 계급지배와 멕시코 노동계급

### 조 돈 문

디아스 시대의 멕시코는 국가 주도로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수출 관련 산업부문들과 수송부문들을 중심으로 임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일반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산업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에 의존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들이 없는 탓으로 노동조건은 자본가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업장에서도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 하에서 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들과 잔혹한 노동통제였다. 노동조건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었으며,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는 감독자들에 의하여 별과금과 감봉과 같은 물질적 제재와 구타와 감금과 같은 물질적 제재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잔혹한 노동통제가 당시의 노동자들 불만의 핵심을 구성하였으며,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차별대우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외국인 감독에 대한 반감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계급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은 국가가 상호부조회는 용인하나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들에 대하여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6·7년 파업불결 이후 더욱 극심화된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은 무엇보다도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에 의하여 저해되었으며,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의 온상이 된 요인들은 섬유산업의 예를 들면 내부하청의 존속과 회사도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I. 들어가는 말

디아스(Porfirio Díaz) 시대의 멕시코는 국가주도 경제성장정책을 통하여 수출주도형의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출관련 산업들과 수송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산업노동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생산체계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부상하게 되는 한편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가 지배적 노동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같이 멕시코의 경제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디아스 시대는 멕시코 혁명의 발발로 종식된다.

디아스 시대와 특히 이 시기의 노동계급에 대한 연구는 멕시코 혁명의 전개와 혁명기간 동안의 노동계급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과제이며,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계급형성 수준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sup>1</sup> 본 논문의 목적은 디아스 시

<sup>1</sup>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class formation)이란 단순히 산업의 발달과 규모의 팽창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들의 형성이라는 의미의 구조적 형성(structural formation)과는 구분된다. 계급형성이란 “구조적으로 정의된 노동계급이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로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계급형성은 “계급형성의 수준(degree of class formation)”과 “계급의 존재양식(mode of class existence)”이라

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이며 그러한 계급형성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 인과적 기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sup>2</sup>

디아스 시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의 성공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공장 안팎의 계급지배 양식은 어떠하였으며, 노동계급의 일상적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노동자들의 불만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불만이 계급적 대감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도 규명하고자 한다.

## II. 국가와 자본계급

### 1. 국가의 경제정책

뽀르뻬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35년에 걸친 통치기간 동안 멕시코 사회는 하나의 통합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디아스 집권 이전 시기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오랜 투쟁(liberal-conservative struggle)으로 인하여 멕시코 사회는 소위 까우디요(caudillos)라는 지역단위의 군벌들의 통제 하에 분절되어 있었다. 디아스 정권은 이러한 지방의 군벌들에 대항하여 정치적 권력을 중앙집중화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하나의 전국시장(national market)을 발달시킴으로써 멕시코 경제를 통합하였다.

지방정부를 이끄는 기관장들(jefe políticos)의 임명을 연방정부에서 탈환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는 성취되었다.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정부의 기관장들은 군대, 경찰력과 민병대(rurales)<sup>3</sup>를 동원하여 지방 군벌들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마침내 이들을 제압하게 되었다(Márquez Padilla, 1986 : 82-84 ; Leal, 1987 : 141 ; Cockcroft, 1983 : 86-87). 중앙집중화된 정치권력은 정당들의 각축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뽀르뻬리오 디아스라는 한 사람의 통치자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었다.

는 두 차원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계급형성의 수준은 “조직적 형성(organizational formation)”과 “이데올로기적 형성(ideological formation)”으로 구성된다. 계급구성의 정의에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조돈문(1994a)을 참조할 것.

- 2 본 논문은 한국의 일제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일제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에 대한 분석과 디아스 시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는 조돈문(1994b)를 참조할 것.
- 3 민병대들이 시골 지방의 임의적인 경찰력으로 처음 설립된 것은 19세기 중반 불란서의 침입이 있던 기전에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에 의하여서였다. 민병대들의 주요 기능은 “도로를 순찰하며, 군대를 보조하고, 탄약과 상품의 특별한 수송을 경비하고 지방의 선거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Meyer & Sherman, 1983 : 405). 디아스 통치에 접어들자 민병대들은 시골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정규 경찰과 군대의 보조기구로서 활약하며 불온한 활동을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의회나 사법부의 부재하에서 디아스의 통치는 곧바로 독재로 전환되었고, 독재자의 연이은 재선은 자유파(La Libertad), 자유동맹(Unión Liberal), 시엔띠뻬꼬스(científicos)와 같은 디아스 개인의 추종세력의 봉당들의 활약에 바탕하여 있었다(Leal, 1987 : 81-83, 153). 정치적 봉당들이 정당으로 발달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들은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 지배 엘리트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술관료들(technocrats)의 집단인 시엔띠뻬꼬스는 주요 산업자본가들, 상업자본가들, 대지주들과 함께 통치계급(ruling oligarchy)을 형성하였다. 사실 시엔띠뻬꼬스는 국가 정책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시엔띠뻬꼬스는 재무장관인 리만뚜르(José Yves Limantour)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리만뚜르는 재무부 뿐만아니라 모든 다른 부처들도 장악하고 있었다. 리만뚜르 자신도 외국자본이 소유한 두개의 주요 사설은행의 중역직을 겸직한 한편, científicos는 주요한 산업자본가들 및 상업자본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Hamilton, 1982 : 48-49 ; Leal, 1987 : 156-157 ; Anderson, 1976 : 242-243 ; Walker, 1981 : 284).

디아스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립은 시엔띠뻬꼬스가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형의 신봉자들이었다. 디아스 정부는 경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을 개선하고 토지의 집중을 조장함으로써 농산물과 광산물의 수출을 촉진하였다(Barraza, 1969 : 73-74 ; Story, 1986 : 25-26). 재정과 상업의 근대화와 더불어, 철로 건설의 가속화는 광산물과 농산물의 대량수송을 용이하고 값싸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수출부문에 큰 혜택을 주었다. 철로의 총연장은 1876년과 1898년 사이 이십여년 동안 693km에서 12,801km로 증가하였으며 1910년에는 19,280km로 팽창하였다(Randall, 1985 : 20 ; Hernán, 1983 : 39).

멕시코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때, 외국자본은 철도산업, 전기산업과 은행업과 같은 경제 하부구조 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을 포함하는 핵심부문들도 유치되었다(Cardoso & Hermolliso, 1980 : 72 ; Ayala & Blanco, 1981 : 16). 철도산업의 예를 보면, 1880년 이전에는 철로건설이 거의 전적으로 멕시코 정부와 국내자본에 의하여 재정이 확보되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주로 외국자본에 의하여 총당되기 시작하였다(Leal & Gálvez Guzzy, 1975 : 75-77).

이러한 철로의 급팽창과 하부구조의 발달은 단일한 국내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유치산업 부문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지역간의 생산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던 악명높은 지역간 관세(alcabalas)를 철폐하였다(Márquez Padilla, 1986 : 81 ; Story, 1986 : 25-26).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은 멕시코 산업들을 수입대체산업화의 노정에 위치시켜 주는데 기여하였다.

## 2. 산업화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화

호황을 누리는 수출부문이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 멕시코 경제를 이끌어 갔다. 수출부문의 총액이 1877/78년과 1910/11년 사이에 거의 900%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출곧 광산물과 농산물이 총 수출액의 90%이상을 점하고 있었다(Ayala & Blanco, 1981 : 16-19 ;

Reynolds, 1970 : 21-23). 광산물과 수출 농산물 부문은 연평균 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부문들의 성장은 정부의 정책 뿐만아니라 외국 자본의 침투로부터 큰 혜택을 입었다. 외국자본은 주로 멕시코 경제의 중심적인 성장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성장부문들은 수출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들로서 광산업, 석유산업, 철도, 수출농산품, 전기, 은행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Leal, 1987 : 106-107 ; Villarreal, 1977 : 68). 그리하여 1900년대에 오면 외국자본은 멕시코의 170대 기업들의 80%를 통제하고 되었으며, 산업별로 보면 광산업의 98%, 철도산업의 62%, 석유산업의 100%, 전기업의 87%, 은행업의 77%를 외국자본이 점유하게 되었다.

수출관련 부문들이 경제성장의 핵심으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성장정도가 빈약하였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이 수출부문들에 뒤쳐있었다고 하더라도, 1880년대 이후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생산의 가속화를 기록하였다. 제조업부문의 생산량은 1878년과 1911년 사이에는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배가되었으며, 비내구성 소비재 부문이 제조업부문의 성장을 주도하였다(de la Peña, 1975 : 209-210 ; Ayala & Blanco, 1981 : 21). 제조업부문은 수공업적생산의 단계로부터 공장제 대량생산의 단계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섬유산업과 같은 소비재산업부문들은 수입대체의 목표를 성취하였다<sup>4</sup>.

예컨데 섬유산업을 보면 소규모 수공업적 작업장들이 신규로 설립되는 공장들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었다. 면방직 공장들의 숫자는 1876년과 1892년 사이에 47개로부터 133개로 증가하였으며, 방직기의 숫자는 400%정도 증가하였다. 섬유산업은 1890년대에 자본집중과 기술혁신의 과정을 겪었다(Ramos-Escandón, 1981 : 40-46 ; Anderson, 1976 : 12-41 ; Gamboa Ojeda, 1985 : 85). 1890년대에는 기존의 공장들이 확장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주요한 대규모 공장들이 프랑스 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900년대에 오면 5대 프랑스 자본의 섬유기업들이 멕시코의 섬유공장들 145개 가운데 14개를 점유하고 있는 한편, 노동력에 있어서는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에 경제공황이 엄습하였을 때 멕시코의 섬유산업은 과잉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점에 이미 도달하였다(Estrada Urroz, 1986 : 64 ; Gamboa Ojeda, 1985 : 85-86).

### 3. 자본축적과 자본계급

디아스정부가 외국자본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에 각종의 특전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자본이 자본축적의 중핵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외국자본가들은 수출관련 부문들 뿐만아니라 주요한 제조업부문들도 지배하게 되었다(Malpica, 1989 : 32-35 ;

4. 수입대체산업화의 진전은 수입의 구조에서의 변화로 발현되었다. 총수입액에서 소비재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7년과 1911년 사이 75%에서 43%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원재료와 자본재의 비중이 두배 이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소비재의 수입대체산업화가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Barraza, 1969 : 73-74).

Leal, 1987 : 107-108 ; Cockcroft, 1983 : 93). 프랑스 자본가들은 섬유산업의 대규모 공장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독일 자본가들은 맥주산업에 침투하여 있었다. 대다수의 멕시코 자본가들은 신설되는 사업체에 외국자본가들의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멕시코 자본가들은 주로 섬유산업이나 제당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산업부문들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사실 1911년 현재 80 대 상업·산업 기업들 가운데 멕시코 자본가들에 의하여만 소유되고 있는 기업체들은 6%에 그쳤다.

디아스 정부는 주로 외국자본가들과 대지주들에게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하였고, 사실 디아스 자신도 몇가지 사업에서 외국자본가들과 직접적인 동업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외국자본가들에게 각종의 특전을 제공하였다(Turner, 1984 : 113). 반면 제조업부문의 중소 자본가들은 주로 멕시코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은행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거의 신용대출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산업자본가들은 대체로 경제팽창의 기슭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들은 외국자본의 멕시코 경제에 대한 지배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Michaels & Bernstein, 1976 : 692-693 ; Hamilton, 1982 : 50-51). 그결과 외국자본가들은 디아스 정권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자본계급의 혜개모니적 분파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었다.

멕시코 자본계급의 현대적 조직은 1874년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결성되었다(Shafer, 1973 : 16-21). 바로 이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는 자본가들과 디아스 정부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광업, 농업, 제조업 및 상업 등 각종의 부문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업회의소를 지배하던 세력은 상업자본가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외국 자본가들이었다.

### III. 공장 안팎의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

멕시코의 계급관계의 유형은 디아스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의하여 모양지워졌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디아스 정권은 생산관계의 안정을 보장하여야 했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해답은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억압하고 불온한 노동조직체들을 탄압함으로써 공장에서의 가능한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입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이었다(Cardoso & Hermolliso, 1980 : 72-73 ; Candelario Reyes, 1978 : 52). 결국 생산의 관계(relations of production)<sup>5</sup>에서와 생산내 관계(relations in production)에서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이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5. 상품의 생산과 잉여가치의 전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생산관계(production relations)는 생산의 관계와 생산내 관계라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의 관계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의 문제로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착취의 관계가 핵심을 이룬다. 반면 생산내 관계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로서 생산의 관계의 결과로서 생산과정에서의 작업과 활동의 분업과 조직을 의미한다. 생산의 관계와 생산내 관계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돈문(1994a)를 참조할 것.

디아스 정권은 전제적 지배양식의 작동을 위하여 군대와 민병대와 같은 억압기구(repressive apparatuses)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들이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1857년 헌법의 추상적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대부분의 주들은 “산업이나 노동의 자유로운 행사를 방해하는” 시도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구금과 벌금을 허용하고 있는 특별구의 형법(Federal District's Penal Code 1871)의 925조를 따른 법규들을 제정하였다(Anderson, 1976:87-88; Oñate, 1985: 78). 이러한 유형의 법조항은 정부당국이 분규를 떨이는 노동조직체들이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디아스 통치하에 노동자들 파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전형적인 유형은 무장탄압이 아니면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이었다.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1907년 리오 블랑코(Río Blanco)파업에 대한 디아스 정부의 개입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의 중재 결정은 노동자들의 요구조건들의 어느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반면, 자본가들이 부과한 공장규칙들을 옹호하고 있었다(Fernandez, Jaber & Robles, 1979: 361; Walker, 1981: 283-284). 디아스의 중재 결정은 심지어 노동자들이 신규로 채용되기 전에 개인별 직업변경사(passbook)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변경사의 제출로 자본가들은 손쉽게 불온한 노동조직체들의 활동가들을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아스 정부의 노동정책은 리오 블랑코 파업 후에는 더욱 탄압적인 정책으로선회하게 되어, 노동자들은 경찰들의 빈번한 검거선풍과 군대로의 징집에 시달리게 되었다(Anderson, 1976: 205-206).

자본가들이라고 디아스 정권보다 덜 강경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본가들은 잘 조직되어 있었다. 1906년 가을에 푸에블라주의 섬유자본가 조직체인 CIM(Centro Industrial Mexicana)은 모든 섬유공장들에 대하여 강경한 공장 규칙들을 부과하였다(Anderson, 1976: 138-139). 디아스가 1906년 12월 파업중인 푸에블라주의 섬유 노동자들로부터의 중재의 요청을 수락하였을 때, 푸에블라주의 자본가들은 대통령 디아스의 중재를 거부하였으며 전국적인 직장폐쇄를 전개하였다. CIM은 “이번의 직장폐쇄가 성공하면 멕시코에서 파업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과 더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이다”고 공언하였다(Walker, 1981: 282-283). 자본가들은 진행중인 파업을 분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파업에 책임이 있는 불온한 노동조직체들을 근절까지도 목표하고 있었다. 대부분 멕시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 자본가들은 파업 노동자들과 타협할 의향을 보다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장들의 외국 자본가들은 파업하

6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전제적 지배의 결과는 시엔띠페고스를 포함하는 지배 엘리트에 의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특정한 형상을 만들게 되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대체로 “체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악습의 노예이며” 그리고 “질서나 규율이 없이 범죄적 성향에 젖어있다”고 지배엘리트들에 의하여 묘사되고 있다(Anderson, 1976: 69-70, 312). 이러한 고정관념은 심지어 노동자들의 후원을 받는 일간지들에도 오염되어 있었으며, 멕시코 노동자를 자신들도 음주벽이나 낭비벽과 같은 악습이 모든 노동자들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 남아있으며 그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고 있었다(Anderson, 1976 : 145-149).

당시의 많은 노동자들의 증언(Gasca, 1975b : 9 ; Morales Cortés, 1975 : 6-7 ; Ignacia Torres, 1977 : 2 ; Esther Torres, 1975 : 25)은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시도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잔혹하게 대응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포착하는 즉시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적대감에 관한 대자본가들과 중소자본가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디아스 정부는 자주 민병대를 특정 공장들에 할당하여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조합 활동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호부조회를 결성하는 것은 고무하기도 하였다(Wlaker, 1981 : 273 ; Anderson, 1976 : 166). 이렇듯 국가와 자본가들 사이의 밀접한 연합하에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은 생산의 관계에서와 생산내 관계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 IV.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의 실패

##### 1. 무산자화

멕시코의 노동계급이 구조적으로 형성된 것은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이었다. 자유주의자들(Liberals)이 1855년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로 진행된 지속적인 토지집중의 과정은 디아스 통치 기간동안의 농산물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하에서도 지속되었다.

반 세기에 걸친 토지집중 정책이 겨냥한 토지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 교회의 토지와 인디안들의 공유지(Leal, 1987 : 83-91 ; Cockcroft, 1983 : 74-76 ; La France, 1986 : 326). 교회의 토지는 몰수되어 비신자 지주들에게 매각되었으며, 반면에 인디안들의 공유지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분할되어 대규모 지주들이나 상업 자본가들에게 매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의 상당부분은 소유주들이 적절한 토지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거로 주인없는 토지로 판정되게 되었다. 게다가 뒤이은 물사용권의 전유와 5% 매매세의 부과는 무수한 영세농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토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토지집중의 과정은 농산품 수출의 불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인디안 농민들을 무산자로 만들었다(Ayala & Blanco, 1981 : 19 ; Katz, 1974 : 1-2 ; Hamilton, 1982 : 55). 그리하여 디아스 통치가 끝날 무렵이 되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이 농촌 인구의 90-95%를 차지하는 한편, 8대 대지주들이 멕시코의 총 경작지의 1/8을 점유하게 되었다. 결국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대다수는 이제는 수출 농산물로 선회한 하시엔다(haciendas)에서 부채농노(debt peon) 혹은 일용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sup>7</sup>

<sup>7</sup> 카쓰(Katz, 1974 : 3-10)에 따르면, 하시엔다에는 네가지 유형의 노동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영구거주 농노(permanent resident peons), 임시고용 노동자들, 소작인들(tenants), 물납소작인들

농민들이 일단 자신들의 토지를 상실하게 되면, 이들은 무리를 지어 이웃 하시엔다나 혹은 원거리의 산업부문들로 이주하는 것이 보통이다(Malpica, 1989 : 18 ; Anderson, 1976 : 28).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농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수출관련 부문들이 소비재부문과 같은 산업부문에 일정한 연관효과를 가져다 줌에 따라 산업 노동력은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1895년과 1900년 사이에 산업 노동력은 16%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은 13%나 증가하였다.

<표 1> 멕시코의 산업별 노동력 규모의 변화, 1895-1910.

산업\연도	1895	1900	1910
농업	2976128	3177840	3584191
산업	692697	803294	803262
제조업	554555	624039	613913
광업(석유포함)	88548	107348	104039
수송업	55678	59666	55091
건설업	49594	62997	74703
전기업	--	8910	10553
총계	4761914	5131051	5337889

자료 : Anderson(1976:342)

전형적인 전자본주의적인 노동력의 형태인 부채농노가 하시엔다에 지배적인 노동력의 유형으로 남아있는 반면, 산업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Basurto, 1975 : 25-27 ; Knight, 1986a : 127 ; Shabot, 1982 : 32). 특히 산업노동자들은 부문간 집중과 부문내의 집중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첫째, 이들은 세개의 핵심적인 산업부문들에 밀집되어 있었다: 1900년대에는 80,000 광산 노동자들, 40,000 철도 노동자들, 32,000 섬유노동자들. 둘째로 산업노동자들은 각 부문에서 공장의 숫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의 평균규모는 증대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섬유산업의 예를 보면, 6개 기업체들이 총 섬유생산의 40%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철도망이 급팽창하여 대규모의 전국적 시장을 형성하고 대규모 공장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규모 수공업적 작업장들은 시장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갔고(Leal, 1987:89;

(sharecroppers) 등이다. 영구거주 농노는 대부분 상황이 불가능한 정도의 부채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부채농노(debt peons)라고도 불리운다. 부채농노들은 자신들이 진 부채를 지불하기 않는 한 떠날 수 없으며, 이들이 부채를 청산한다는 것은 통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출농산물이 호황은 누리고 있던 남동부지역에서는 부채농노들이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광산업과 열마간의 제조업이 번성하던 북부 지역에는 산업 노동력의 급증하는 수요로 인하여 부채농노들이 감소하고 있었다(Katz, 1974 : 11-39).

Anderson, 1976 : 47-49), 시장에서 공장생산이 장인생산을 대체함에 따라 공장 노동자들이 장인노동자들을 숫자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장 생산이 장인생산의 시장을 공격하는 부분에서는 장인생산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섬유산업의 예를 들자면 장인 직조공들은 1895년과 1910년 사이 41,000에서 12,000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들은 실업되거나 불완전고용되었다.

대다수의 장인노동자들이 무산자화의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디아스 통치하의 공장생산의 급팽창하에서 어떤 부문들에서는 장인노동자들의 숫자가 증대하였거나 최소한 정체하고 있었다. 앤더슨(Anderson, 1976 : 47-49)에 따르면 이와같이 감축을 면한 부문의 노동자들은 기계공들(mechanics), 건설노동자들, 구두장이들, 인쇄공들과 대장장이들 등이었다.

## 2.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의 실패

멕시코 노동자들은 이미 1850년대부터 상호부조회(mutual-aid society)의 형태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조직체들이 1900년대 중반에 전형적인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들로 전환하기 까지에는 상호부조회가 멕시코의 노동자 조직체들의 주도적인 형태였다.

일단 1850년대에 최초의 상호부조회가 결성되고나자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장에 상호부조회들을 열정적으로 결성하였다. 1870년대 초반까지 상호부조회는 멕시코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고, 특히 멕시코시티에 있는 재단사, 목수, 구두장이와 같은 장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Leal, 1985 : 45 ; Anderson, 1976 : 78-79). 상호부조회는 1870년대에 두드러지게 확산되었고 그럼으로써 전국적인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부조회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적 협동이라는 중추적인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Gasca, 1975b : 2-3 ; Ramos-Escandón, 1981 : 140-141 ; Anderson, 1976 : 78-79 ; Richmond, 1987 : 282). 상호부조회는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정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한편, 의료보조, 장례비용, 긴급대부, 실업보상금 등과 같은 물질적 급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상호부조회의 두번째 기능은 문화적 교양이었다. 소속 노동자들의 문화적 개화를 위하여 상호부조회들은 도서실을 개설하였고 노동자들의 앙학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상호부조회들의 창립자들의 일부는 유럽의 무정부주의(anarchism)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호부조회는 기본적으로 비적치적 입장을 고수하였고 소속 노동자들의 물질적인 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자본가들과의 대립 보다는 상호부조를 택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노동자 조직체로서의 상호부조회의 집행부는 회계와 일군의 미분화된 잡무들을 수행하는 비서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Araujo, 1977 : 2 ; Leal, 1985 : 44). 위기 상황에서는 상호부조회들도 노동조합과 유사한 공격적 성격들을 보이기도 하지만,<sup>8</sup> 이들은 일단 위기가 평정되고나면 본래의 방어적 성격의 상호부조회

의 전형으로 점차 복귀한다(Shabot, 1982 : 21-22).

상호부조회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GCOM(Gran Círculo de Obreros de México)이 결성된 것은 1872년이었으며, 1883년 폐쇄될 때까지의 GCOM의 활약시기는 상호부조회 운동의 절정기를 이룬다. GCOM은 멕시코시티 내의 일군의 상호부조회들에 의하여 결성된 아래 멕시코시티 밖으로도 소속 조직체들을 확장하여 갔다(Freyre Rubio, 1985 : 53-54 ; Anderson, 1976 : 80-81 ; Clark, 1934 : 5-6). 그리하여 1875년에는 GCOM은 12개 주와 멕시코시티에 걸쳐 28개의 지부들을 두었고, 그중 단지 8개 지부들만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베라크루스주(Veracruz state)에만도 7개의 지부들이 있었다. 1878년 현재 GCOM은 소속 노동자들 2000명과 43개 조직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GCOM의 힘의 핵심은 구두장이들, 재봉사들, 제과공들, 목수들, 양조공들, 연주자들, 기계공들 등과 같은 장인노동자들에게 있었다.

소속 조직체들과 같이 GCOM도 경제적 협동과 문화적 교양이라는 상호부조 기능들에 헌신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동의 기능들은 상호부조회들의 조직적 확장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디아스 정권과 멕시코 자본가들이 GCOM과 소속 상호부조회들을 별로 위협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Walker, 1981 : 272-273 ; Anderson, 1976 : 85-86). 디아스 정부는 심지어 GCOM의 성공을 축복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디아스 정부는 노동자들의 교육을 강조하며, GCOM이 경영하는 야학들에 자금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부가 직접 야학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부 멕시코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의 상호부조회들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COM이 전국회의들을 통하여 상호부조회의 목표들을 넘어서게 되자 정부는 초기의 지지의 태도로부터 적대의 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Anderson, 1976 : 81-86 ; Hart, 1978b : 2). 1876년 GCOM의 제1차 전국회의는 파업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수단중의 하나라고 옹호하였다. 그런 다음 3년 뒤에 제2차 전국회의에서 파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물질적 복지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맹세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디아스 정부는 처음에는 GCOM 지도자들의 일부를 구속하였고 그후 1883년에는 마침내 GCOM을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상호부조회들은 수년간 일시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되었다.

상호부조회 운동이 쇠퇴해 가는 동안, 산업노동력의 급성장에 힘입어 상호부조회들은 노동자 구성에 있어서 장인노동자들의 우세로부터 산업노동자들(industrial proletariat)의 주도로 이행하였다(Freyre Rubio, 1985 : 54 ; Leal, 1985 : 45 ; Anderson, 1976 : 78-79). GCOM시기가 끝날 때까지만 하여도 상호부조회들에서 장인노동자들은 산업노동자들보다도 더 잘 조직되어 있었고, 따라서 장인노동자들이 상호부조회 운동과 GCOM을 지

8 디아스 정권에서는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노동조직체들은 비밀주의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충성의 맹세(oath of allegiance)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밀스런 노동자조직체들은 파업을 한번 겪고나면 소멸되는게 보통이었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이라기 보다는 과도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Malpica, 1989 : 35-36 ; Ramos-Escandón, 1981 : 138).

배하였다. 또한 그들은 연방특구의 섬유산업과 같이 이미 상호부조회들이 조직되어 있는 현대적인 산업들에서 조차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주도권을 잡는 일이 자주 있을 정도였다. 이와 함께 점점 더 많은 산업노동자들이 상호부조회들로 조직되어 왔었다.

철도산업의 경우(Clark, 1934 : 5-6 ; Ashby, 1963 : 4 ; Shabot, 1982 : 42-44), 최초로 상호부조회가 결성된 것은 1888년이었고, 이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1897년에 두번째로 상호부조회가 결성된 것을 기점으로 상호부조회의 결성이 활발하게 되어, 1900년대 까지 상호부조회의 조직이 전성을 구가하였다. 한편 섬유산업 노동자들은 철도 노동자들 보다 더 먼저 상호부조회들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Radkau, 1984 : 42-44 ; Ramos-Escandón, 1981 : 143-148 ; Anderson, 1976 : 103). 섬유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조직된 부문은 멕시코시티의 섬유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장인노동자 조직체들과 더불어 GCOM을 결성하는데 참여하였다. 그러나 수도의 밖에서는 섬유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더디게 진전되었었다. 베라크루스주의 섬유도시 오리사바(Orizaba)를 예로들면, 1906년 초까지 결성된 상호부조회는 두개에 불과하였다.

멕시코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상호부조회들이 장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산업노동자들 사이에서는 1906-1907년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산업노동자들의 조직체들이 상호부조회로부터 노동조합으로 이행하는 시점은 GCOL(Gran Círculo de Obreros Libres)와 리오 블랑꼬 파업이었다.

GCOL은 1906년 4월 리오 블랑꼬 공장에서 일군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결성되었으며, 창립자들은 이전의 상호부조회들과는 달리 투쟁적인 목적을 위하여 GCOL을 비밀조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GCOL은 비록 소수의 노동자들의 조직체로 출발하였지만 5월에 있은 최초의 파업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던 감독을 제거하고 별금제를 폐지하는데 성공한 다음부터는 공장에서 가입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그결과 6월 까지 GCOL은 베라크루스주의 오리사바에 있는 모든 섬유공장을 조직하였으며 10월에는 푸에블라주의 섬유노동자들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06년 말까지 GCOL의 소속 노동자들은 멕시코 전역에 걸쳐 8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9천명 내지는 만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섬유노동조합의 연합체로서 GCOL의 핵심은 베라크루스주와 푸에블라주에 있었다(Fernandez Flores, 1975 : 43-45 ; Richmond, 1987 : 273 ; Anderson, 1976 : 103-108).

GCOL의 창립자들과 지도자들의 일부는 혁명적 무정부주의자들인 마공 형제들(Magon brothers)과 그들의 정당인 PLM(Partido Liberal Mexicano)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sup>9</sup> 이들이 초창기의 GCOL을 지배하였다. GCOL이 혁명적인 친마공주의자들의 지도력하에서 급격히 성장을 함에 따라, 디아스 정권은 저명한 친마공주의자 지도자들을 검거함으로써 GCOL에 치명타를 안겨주고자 하였으며, 이때 친마공주의자 지도자들의

<sup>9</sup> GCOL의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 잘 알려진 친-마공주의자들로서는 José Neira, Rafael Váldez, Samuel Ramírez, Manuel Avila, José Rumbia 등을 들 수 있다(Bustamante, 1934 ; Anderson, 1976:106-108, 133).

일부는 겸거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그뒤 온건파인 호세 모랄레스(José Morales)가 위원장직을 접수하게 되었고 디아스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공식적 인가를 받아내게 되었다(Walker, 1981 : 281 ; Anderson, 1976 : 106-108, 133). 결과적으로 GCOL 지도자들 사이에서 PLM의 영향력을 소진하여 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도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GCOL의 일반 노동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PLM과 마공형제들의 영향력은 여전했다고 당시 리오 블랑꼬공장의 노동자였던 훌로레스(Fernandez Flores, 1975 : 14, 41-42)는 중언했다. PLM의 기관지인 *Regeneración*은 GCOL이 결성되기도 전인 1903-04년에 오리사바의 섬유노동자들 사이에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중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Regeneración*을 읽는 것이 발각될 경우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비밀리에 서로 전달하며 한밤중에만 읽었다고 한다. 훌로레스의 중언은 노동자들이 *Regeneración*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일상경험을 계급의식으로 접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훌로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마공형제로부터 조언과 의견과 지침들을 얻기위하여 신문이 도착하는 때를 학수고대했다… 우리가 마공 신문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이후에 발달하게 되는 노동운동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GCOL은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GCOL의 노동조합 활동은 비밀로 남아 있었다(Malpica, 1985b:178 ; 1989:36). 예컨데 GCOL 노동자들은 정규적인 노동조합 회합을 갖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에만 비밀리에 만ざ고 있었다. 훌로레스(Fernandez Flores, 1975 : 43-46)는 리오 블랑꼬공장에 있는 GCOL 노동조합이 잉크나 종이와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노동조합원들은 특별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물품들을 비밀리에 구입하였다고 중언한다. 그의 중언에 따르면 노동조합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여러 사업장들로 분산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들 사이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06년 12월과 1907년 1월 사이의 GCOL 주도의 일련의 파업이 대량 겸거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끝난 다음, 멕시코의 섬유 노동자들은 조직적 형성에 있어 주요한 퇴보를 경험하게 되었다(Anderson 190-201 ; Gamboa Ojeda, 1990 : 80). 그리하여 반란적인 파업이라는 전략을 비난하는 멘도사(Pascual Mendoza)에 의하여 GCOL은 새로운 이름으로 재조직되었고, GCOL 노동조합들의 자리에 상호부조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GCOL 노동조합들의 상호부조회들에 의한 대체가 전투성으로부터의 상당한 정도의 후퇴를 의미하였을지라도, 외양과 내용에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데 푸에블라주 아틀리스코(Atlixco)의 가장 큰 섬유공장인 메테뻬 공장(Metepec mill)에서 결성된 섬유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조직체는 GCOL내에서 모랄레스 지도부에 대항하였던 라미레스(Samuel Ramírez)라는 친-PLM 지도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다(Malpica, 1989 : 38 ; Anderson, 1976 : 200-201). 게다가 1908년 베라크루스주의 상부르노(San Bruno) 공장에서 섬유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메테뻬 노동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모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06-1907년은 철도 노동자들의 조직체들이 상호부조회로부터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로의 전환을 경험한 해이기도 하였다. 1900년대에는 매우 많은 수의 노동자 조직체들이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후일 가장 크지는 않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철도노동자 조직체가 된 UMM(Unión de Mecánicos Mexicanos)이 형성되기도 했다. UMM은 출범할 당시, 상호부조회인 동시에 직능조직체(craft organization)의 성격을 겸비한 조직체였다. UMM은 신규가입을 철도산업과 여타 산업들의 기계공들에게만 제한함으로써 직능조직체로 남아 있었을지라도, 1906-1907년을 전후하여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sup>10</sup>

UMM은 노동조합과 파업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여타의 노동자 조직체들과 똑같이 상호부조회<sup>11</sup>로 시작하였다(Woldenberg, 1979 : 240-248 ; Leal, 1985 : 49-50). 그러나 1906년의 파업과 1907년 7월의 제1차 전국회의는 UMM을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로 전환시켰다. 그후 UMM은 8시간 노동, 보편적 임금인상, 고정된 작업 규칙들과 같은 노동조합식의 목표들의 성취에 헌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파업 전략이 표방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한편 UMM은 최초의 3년 동안 조직해체의 과정을 겪었으나 곧이어 꾸준히 규모의 성장을 보였다(Woldenberg, 1979 : 244-261 ; Shabot, 1982 : 67). 이와 같은 UMM의 조직적 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기계공들이 각 사업장의 기관부(engine department)<sup>12</sup>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1906년에 전개한 파업이었다. 그리하여 1908년 현재 UMM은 멕시코 전역에 걸쳐 17개 지부들과 13개 부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UMM이외에도 멕시코의 철도노동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강한 조직으로는 GLMEF(Gran Liga Mexicana de Empleados de Ferrocarril)을 들 수 있다. GLMEF는 1905년 철도산업내의 다양한 직능집단들에 의하여 결성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은 대체로 화이트칼라 피고용인들이었다. UMM과는 달리 GLMEF는 존속기간 내내 줄곧 상호부조에 헌신된 상호부조회로 남아 있었다(Shabot, 1982 : 126-165 ; Anderson, 1976 : 214-215). 즉 GLMEF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조화의 가능성을 믿었으며 도발적인 파업을 범죄행위로 비난하였다. GLMEF는 한때 10,000명의 구성원을 자랑하기도 하였으나, 특히 “개별 지부들 사이에 충분한 조정이 없는 자연발생성과 해체”(Shabot, 1982 : 140)로 인하여 무력함을 노출시킨 1908년 파업 실패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sup>10</sup> UMM은 철도산업내의 기계공들만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타 산업의 기계공들도 참가하도록 유인하였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기계공들이 가입 노동자 숫자로 보나 지도력으로 보나 UMM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Woldenberg, 1979 : 242).

<sup>11</sup> UMM의 창설자인 라레이(Teodoro Larrey)조차도 계급이라든가 투쟁의 목표나 전술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Gill, 1977 : 42). 이러한 의미에서 UMM이 친-PLM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설된 GCOL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하겠다.

<sup>12</sup> 중앙철도회사(Ferrocarriles Centrales company)를 예로 들면 1906년 현재 2329명의 기계공들과 2681명의 청소부들이 기관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로 UMM의 조직대상이며 그 회사의 총 고용규모의 27%에 이르고 있었다.

철도노동자 조직체들이 성장함에 따라 디아스 통치가 끝날 무렵에는 멕시코의 철도 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조직되어 있었다.<sup>13</sup> 수적인 힘으로 보면 GLMEF와 UMM이 1907년 각각 5000과 3000을 주장하며 최대의 철도노동자 조직체로 군림하였고, 이들 이외에 두개의 다른 조직체들이 합하여 3500명 정도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GLMEF의 내적인 무질서와 후반의 쇠퇴로 인하여, 조직적 결속력과 전투성을 보유한 UMM이 철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전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Arajuo, 1977 : 7 ; Woldenberg, 1979 : 242 ; Anderson, 1976 : 92).

1906-1907년의 리오 블랑꼬 파업 이후의 일시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조직체들은 철도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에서도 살아남았다(Anderson, 1976 : 228 ; Leal, 1985 : 45). 노동조합은 1906-1907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다음 디아스 통치가 끝날 때가 되면 철도산업과 섬유산업에서도 노동자 조직체의 주도적인 유형으로 되었다. 산업노동자들이 1900년대에 부침을 겪는 동안, 장인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후퇴나 성장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장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은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상호부조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디아스 정권이 1911년 붕괴하였을 때 멕시코의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들로 조직된 산업노동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부조회들로 조직된 장인노동자들이 있어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아직 노동자 조직체들의 통합은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 3.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실패

#### (1) 노동자 경험

##### 〈노동자들의 구성, 노동시장〉

공유지의 해체와 농촌부문의 궁핍화를 통한 농민들의 가속화하는 무산자화 속도를 산업의 성장이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디아스 시대에는 풍부한 잉여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흥수지어 유입되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거대한 저수지의 존재는 대부분의 멕시코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아니라 여성노동력의 참여를 극도로 제약했었다고 하겠다. 섬유자본가들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도 남성 노동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Anderson, 1976 : 41). 결과적으로 섬유산업의 노동자들 조차도 압도적으로 남성으로 구성되었다.<sup>14</sup>

<sup>13</sup> 철도노동자들의 조직체들이 성장함에 따라 철도 노동자 조직체들의 연합을 경성하려는 진지한 시도들이 수차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 중 가장 나중의 시도는 UMM과 대부분의 GLMEF 지부들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Confederación de Ferrocarrileros Mexicanos를 결성하는 데 그침으로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Anderson, 1976 : 240).

<sup>14</sup> 섬유산업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에 관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추산은 다양하다. 멕시코시티의 La Fama라는 섬유공장의 경우 단지 14%만이 여성 노동자들이었다(Radkau, 1984 : 39). 리오 블랑꼬 공장에서 당시 일한 적이 있는 한 노동자는(Fernandez Flores, 1975 : 43) 1907년

잉여 노동력의 풍부함과 더불어 직업이동률은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 줄곧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직업이동률은 자발적인 이직 보다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더 크게 기인하였다. 그 당시 섬유노동자로 일한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Muñoz, 1976 : 11-12 ; Tomas Torres, 1975 : 3-6), 노동자들의 자의적인 해고로 표출되는 고용안정성의 결핍이 노동자들의 높은 직업이동률의 주범이었다고 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해고의 위험 앞에서 섬유노동자들은 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5</sup>

한편 자본가들은 높은 직업이동률에 시달릴지라도 신규로 노동자들을 충원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주로 개인적 연줄들을 통하여 충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Morales Cortés, 1975 : 3 ; Pérez Linares, 1988 : 105).

### 〈노동계급 내의 민족적 위계〉

디아스 시대에는 철도산업, 광산업과 섬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고위의 직책들은 외국인들에게 할당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예외를 이루는 것은 장인부문으로서, 장인부문을 구성하는 소규모 작업장들은 전적으로 멕시코인 장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대적 산업들에서 외국인들은 높은 자격수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게있는 직책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책들은 경영직, 감독직과 기술직들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산업의 경우 노동력은 외국인 감독들과 멕시코인 육체노동자들이라는 두개의 위계적 집락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다. 철도산업의 경우는 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감독들과 멕시코인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에 희색지대가 있다. 희색지대는 숙련 육체노동자들의 층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멕시코인들과 외국인들이 혼재해 있었다.

철도산업의 예를 들자면(Rafel Mora, 1973 : 17 ; Leal, 1988a : 91-93), 최고위 간부들이나, 부서의 장들과 기관사들과 같은 경영감독직들이나 기술직들을 포함하는 최상층에는 멕시코인들에 비하여 외국인들이 열배나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기계기사들

파업이 있기전 까지는 자신의 공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없었으며, 파업 이후에야 비로서 여성 노동자들이 눈에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는 또다른 자료(Gamboa Ojeda 1990, 69)에 의하면, 1905년과 1909년 사이에 아트리스코(Atlixco)의 섬유 공장 일곱개의 경우 노동자들의 45%정도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서로 상충하는 자료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론은 섬유 자본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을 남성노동자들 보다는 순종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였던 리오 블랑코 파업이 있은 다음부터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디아스 통치가 끝날 때까지도 전체 섬유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5 고용 안정성이나 이직률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뿐만 아니라 산업내에도 편차가 심하였다. 섬유 산업의 예를 들자면 남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보다 일자리를 찾기 쉬웠으며 그 이유는 섬유 자본가들이 장시간 노동을 위하여 여성 노동자들 보다는 남성 노동자들의 체력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machinists) 가운데에는 외국인들이 멕시코인들의 세배나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화부들, 제동수들이나 일용노동자들과 같은 비숙련직 혹은 반숙련직들은 거의 전적으로 멕시코인들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었다.

이러한 민족간의 불평등은 멕시코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의 임금격차에 의하여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국립철도회사(Compañía de los Ferrocarriles Nacionales)라는 어느 철도 회사의 경우 1910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6.49페소였는데 반하여 멕시코인들의 경우 1.58페소에 불과하였다(Leal, 1988a : 93). 또한 멕시코인 노동자들은 임금차별 뿐만아니라 주거, 학교, 교회등과 관련하여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분리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철도산업의 공식언어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였기 때문에 멕시코 노동자들은 영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승진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Gill, 1977 : 61-62 ; French, 1989 : 228).

### 〈작업 조건〉

작업조건의 기준에 관한 법적규제나 직무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조건은 자본가들의 자의성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게다가 전형적인 상호부조회 조직체들이 작업조건의 개선에 주력하지도 않았으며 거의 모든 파업들이 디아스 정권하에서는 자본가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자본가들이 부과하는 작업조건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결국 멕시코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그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부문으로는 섬유노동자들을 꼽을 수 있겠다. 섬유산업에서 평균 노동시간은 12-14시간이었으며<sup>16</sup> 공장조업은 두 가지 유형을 지녔다. 첫번째의 경우(Esteben Monroy, 1977 : 3 ; Joaquín Farfán, 1976 : 5-7), 하루의 공장조업은 12시간 노동의 2교대제였다. 둘째로, 대다수의 섬유공장들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은 1교대제로 12시간 이상이고 가끔 임업으로 연장되기도 하며, 하루 17시간 까지 노동하였다고 증언하는 노동자도 있었다(Leopoldo Trejo, 1976 : 3-4). 야근이나 임업은 거의 모든 공장들에서 강제적이었으며,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 조차도 노동자들은 별 불평없이 야근이나 임업을 임금증대를 위하여 받아들였다(Esteben Monroy, 1977 : 2-3 ; Ramos-Escandón, 1981 : 131-132).

임금과 관련하여 산업노동자들은 농업노동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한편,<sup>17</sup> 산업부문들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철도노동자들과 장인 노동자들이 가장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공장노동자들은 이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16 당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Casillas Rojas, 1975:12, 41), 노동자들은 생산량의 증대를 위하여 작업시간 시작 전에 작업장을 정돈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작업시간 시작하기 반시간 정도 전에 공장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보통 반시간 정도의 아침식사 시간과 한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받고 있었다.

17 1899년 현재 최저 실질임금은 산업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49센트였는데 반하여 농업노동자들의 경우 35센트에 불과하였다. 1910년에 오면 이러한 임금수준은 산업노동자들의 경우 33센트로 하락하고 농업노동자들의 경우 26센트로 하락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기간동안 광산노동자들의 경우에는 48센트에서 63센트로 상승하였다(Knight, 1986a : 129).

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sup>18</sup> 산업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00년대에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1900년대 후반에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Knight, 1986a : 129-135 ; Anderson, 1976 : 58). 베라크루스주의 어느 섬유공장의 경우를 보면, 1902-1907년 사이에 당시 노동자계의 지출의 2/3정도를 점유하던 음식비는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임금은 1.71페소에서 1.59페소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멕시코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에 시달렸던 반면, 기계공이나 기계기사들은 팽창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질임금은 완만하나마 상승을 경험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특히 방직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형태의 성과급의 임금체계가 자리매김하였다. 당시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Morales Cortés, 1975 : 3-8 ; Casillas Rojas, 1975 : 3, 21-23 ; Roberto Rodriguez, 1977 : 2-3 ; Joaquín Farfán, 1976 : 5-7), 1900년대의 전형적인 방직공장의 경우, 각 작업장의 공장장은 기능이 있고 기계를 독립적으로 작동할 자격을 갖춘 숙련방직공들(official)에게 직조기들을 할당하였는데, 대략 4대 정도의 직조기를 한 명의 숙련방직공에 할당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 숙련방직공은 자신이 2대 정도의 직조기를 담당하고 자신의 조수에게 나머지 2대 정도의 직조기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조직의 체계 하에서는, 숙련방직공들은 공장으로부터 생산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조수 방직공들과 여타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숙련방직공들로부터 일당을 받게 된다. 또한 숙련방직공들은 자신들의 조수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외에도 특별수당까지도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공장장과 숙련방직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숙련방직공들과 비숙련노동자들 사이에도 온정주의적 주종관계가 발달하게 되었다.<sup>19</sup>

보잘 것 없는 임금도 자본가들에 의하여 각종의 물질적 착취의 수단들을 통하여 삭감되었다. 따라서 별금과 감봉은 모든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폐해를 끼쳤다(Leal & Woldenberg, 1980 : 118-119 ; Anderson, 1970 : 60). 섬유노동자들과 광산노동자들은 회사직영상점(company store)이라는 또다른 폐해에 추가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Casillas Rojas, 1975 : 19 ; Anderson, 1976 : 59-60). 섬유산업에서 노동자 임금의 일부는 회사권(company scrips)으로 지불되었는데, 회사권은 회사직영상점에서만 태환될 수 있었으며 태환시에는 일정한 정도의 비율로 할인되었다. 또한 섬유공장이나 광산촌이 있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회사직영상점은 노동자들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필품들을 회사직영

18 1890년대 중반에는 공장노동자들은 하루 1-4페소 정도를 벌었는데 반하여, 장인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은 1-5페소를 벌었다고 한다(Anderson, 1976 : 58).

19 모랄레스 코르테스(Morales Cortés, 1975 : 7-8)의 증언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Santa Elena라는 섬유공장의 어떤 공장장을 찾아갔으며 그에게 암탉을 선물하였다 고 한다. 그런 다음 공장장은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었고 그에게 한대의 기계를 할당하여 주었다. 그는 4-5개월을 한대의 기계만을 갖고 작업을 한 다음, 다시 그의 아버지와 공장장을 찾아가서 닭한마리를 다시 선물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그는 기계 한대를 더 할당받았다고 한다.

상점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회사직영상점은 생필품들을 판매하는 이외에도 다과점이나 술집이나 당구장과 같은 값싼 유락시설들도 운영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실한 영양공급은 멕시코 노동자들로 하여금 각종의 직업병과 안전사고들<sup>20</sup>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Ramon-Escandón, 1981:134; Casillas Rojas, 1975:34; Anderson, 1976:52). 철도노동자들의 경우 황열병, 간질, 기타 신경질환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섬유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먼지와 습기로 인하여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이 성을 부렸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조건 뿐만 아니라 생활조건도 열악하기 짙어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섬유공장들은 회사가옥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한다. 한 예로 푸에블라주의 아트리스코에서 가장 큰 섬유공장인 메페뻬(Metepec) 섬유공장에서는 60%정도의 회사가옥들이 평균 6인 정도의 가족에게 방 하나만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Orozco Nuñez, 1988:10-11; Malpica, 1989:35).

### 〈노동통제〉

섬유산업의 경우를 보면 노동통제<sup>21</sup>는 1900년대에 와서 더욱 엄격하여졌다. 1890년대에 섬유산업은 전동기계의 도입을 통하여 주요한 기술혁신을 경험하였다.<sup>22</sup> 새로운 기계류는 낡은 기계들 보다도 작동하기 더 어려운 탓으로 인하여 자본가들은 노동통제 정책을 더욱 더 가혹화 하였다. 기술적 근대화를 겪지 않은 공장들에서 조차도 자본가들은 경쟁상대의 생산성 향상의 도약을 따라잡기 위하여 더욱 더 가혹한 노동통제 규칙을 부과하였다(Angerson, 1976:92-94, 303-308). 이러한 노동통제의 강화는 신종의 노동통제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통제를 통하여 단순히 감독들의 역할을 확대시킬 뿐이었다. 감독은 다툼없이 평가와 길들이기 기능을 수행하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인물로서, 기계들을 노동자들에게 할당하고, 명령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손한 노동자들을 구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Ramos-Escandón, 1981:111). 당시의 노동자의 회고에 따르면(Roberto Rodriguez, 1977:2-4), 노동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본가가 아니라 감독을 면담하였다. 회고자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감독들에게 의하여 해고되는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불평을 늘어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모든 산업들에서 감독들은 노동통제의 주요 수단으로써 물질적 재재와 물리적 제재를 병행하였다.<sup>23</sup>

20 종언에 따르면(Radkau, 1984:38-39), 자본가들은 안전사고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않았다고 한다.

21 노동통제의 세가지 요소는 지시, 감독과 제재를 의미한다. 개념정의와 노동통제 양식의 구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돈문(1994a)를 볼 것.

22 가장 기술적으로 선진된 사업장들은 베라크루스주의 새로운 섬유단지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낙후된 공장들은 멕시코시티와 그 주변의 고령의 섬유단지에 주로 위치하여 있었다. 1907년까지 방적공장과 방직공장 모두에서 새로운 기계들이 낡은 기계들을 거의 전적으로 대체하게 되었다(Anderson, 1976:94-95, 308).

물리적 제재는 무자비한 구타로부터 회사의 창고에 구금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물리적 차별 외에도 노동자들을 제재하고 길들이기 위하여 철도산업이나 섬유산업의 경우 벌금이나 감봉 같은 방법들도 사용되었다(Casillas Rojas, 1975 : 15-16 ; Garcia Marquina, 1976 : 8 ; Anderson, 1976 : 59-60 ; Leal & Woldenberg, 1980 : 118-119). 기계부품을 훼손하거나 기계의 청소를 게을리하거나 불량품을 내게 되면 노동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신문을 읽거나 작업시간 중에 졸음을 준다거나 감독들에 의해 근로자의식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게 되면, 감독들은 노동자들에게 공장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벌금형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강제적 종교 자선과 축제 기금 등과 같은 각종의 감봉을 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결근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감봉을 적용시킴으로써 임금의 감봉을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디아스 정권이 멕시코의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자의성하에 예속시키고 불온한 노동자들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자본가들은 작업장에서 전제적 통제를 마음껏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이 생산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내 관계까지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2) 노동자 불만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 멕시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감독들에 의한 부당한 처우, 벌금과 감봉 등 온갖 종류의 폐해들에 시달렸다. 무엇보다도 저임금과 거칠은 노동통제는 노동자들이 갖는 불만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었다. 전 산업에 걸친 멕시코 노동자들의 물질적인 불만을 보면, 명목임금 조차도 정체하거나 자주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였고(Clark, 1934 : 9 ; Anderson, 1976 : 64-66), 노동자들의 물질적 복지의 악화는 1900년대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다. 하루 평균 임금은 1891년과 1908년 사이에 36센트에서 42.5센트로 증가하였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반감되었다(밀가루 9.71두로부터 5.25두로 감소함). 노동자 가계의 평균 생활비 지출은 한달에 30페소였으며, 그중 60%는 음식물비로 지출되고 17%는 집세로 그 나머지 23%로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경비들을 충당하고 있었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한달에 평균 임금이 30페소의 절반에 불과하였으므로 경제적 곤궁은 가히 상상할 만하였다.

악화되어가는 작업조건에 대한 멕시코 노동자들의 불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대하는 민족적 차별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화되었다. 모든 산업

23 노동자 활동에 대한 엄밀한 통제는 작업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섬유산업의 경우 회사가 옥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가혹한 규제들에 예속되어 있었다. 회사는 방문자들을 제한하였고, 가옥에서 신문을 읽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가끔 사전의 허락이나 통고도 없이 조사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하곤 했다(Francois, 1991 : 9-10 ; Ramos-Escandón, 1981 : 109-111).

부문들에 걸쳐 직무 위계의 상층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었으며, 하층은 멕시코인들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극화 추세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거의 전적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장인부문이었다. 반면 양극화는 섬유산업의 경우 가장 가시적이었고, 철도산업의 경우 중간층에 해당되는 숙련 육체노동층에 멕시코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혼재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양극화는 덜 가시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동일 직급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탓에 철도노동자들의 경우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의식은 도리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Leal, 1988a : 91-92 ; Anderson, 1976 : 236-238). 또한 기계공들, 기계기사들, 제어수들과 열차승무원들과 같은 숙련 노동자들의 중간층의 경우 자신들과 같은 직급의 외국인들이 임금, 총월, 시험과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었으며<sup>24</sup>, 멕시코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숙련직의 하층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동일 직급내의 민족차별의 경험을 겪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산업에서 민족차별에 의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층은 숙련직으로 구성된 중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거칠은 노동통제 수법 역시 노동자들의 불만을 촉발하였다. 즉 악명 높은 벌금과 감봉의 체계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물리적 폭력의 남발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감독들에 의하여 발로 차이거나 구타를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으며, 온순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가끔 회사의 지하실에 감금당하기도 하였다(Anderson, 1976 : 76-77 ; Leopoldo Trejo, 1976 : 3-7 ; Tomas Torres, 1975 : 3-6). 잔혹한 노동통제 체계의 모든 악습이 구현된 것은 감독들이었으며, 이때 감독들은 대체로 외국인들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전제적 노동통제 양식에 대한 적대감이 외국인들에 대한 민족적 감정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더욱 더 가연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산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들에 편재하여 있었으나,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장들과 소규모 공장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섬유산업의 경우 노동통제는 소규모 공장들에 비하여 대규모 공장들에서 더욱더 잔혹한 모습을 띠었다(Anderson, 1976 : 309-310). 소규모 공장들의 경우 대규모 공장들에 비하여 충분한 숫자의 숙련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대규모 공장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에 유사한 보다 온화한 노동자-자본가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규모 공장들의 노동자들은 소규모 공장을 경우에 비하여 더 잔혹한 각종의 벌금과 감봉에 시달렸다. 또한 대규모 공장들의 경우 새로운 외제 기계설비들을 장치한 때문에 새로운 기계의 감독자나 조작자로서 다수의 외국인들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Anderson, 1976 : 77, 131). 실제로 대규모 섬유공장들의 경우 공장장과 감독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섬유공장들의 경우에는 노동통제 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대감이 철도회사들의 경우 만큼 높았었

<sup>24</sup> 1909년 까지 승진의 위계에서 기관사 바로 밑의 직급인 제어수들과 열차승무원들의 96%는 멕시코 인들이었으나, 기관사의 경우 멕시코인은 겨우 1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통계치들(Anderson, 1976 : 236-238)은 승진에 있어 멕시코인들이 얼마나 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

이와 같은 민족적 적대감이 완전한 계급의식으로 발달<sup>25</sup>하는데 장해가 된 요인들중의 하나는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의 온존이었다.<sup>26</sup> 노동자들의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에 대한 예속은 장인부문에서 가장 높고 철도부문에서는 가장 낮으며,<sup>27</sup> 섬유산업의 경우 중간정도에 속한다고 하겠다. 섬유산업에서는 장인부문과 유사한 독특한 작업조직 형태에 의하여 온정주의적 주종관계가 보강되었다. 작업조직의 유형 뿐만 아니라 회사도시(*company town*)의 존재도 역시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를 보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Gamboa Ojeda, 1986 : 31-33 ; Orozco Nuñez, 1988 : 7-14). 회사도시는 특히 대규모 섬유공장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는데 멕시코시티 보다는 푸에블라주나 베라크루스주에서 더 번성하였다. 섬유공장들은 푸에블라주와 베라크루스주의 경우처럼 도회지 중심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을 때, 회사는 회사지역에 회사직영 상점들, 회사 주택들, 교회, 학교와 기타의 시설물들을 건축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 결과 회사도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래서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도시 내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이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후원자 혹은 보호자로 행세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 축제나 종교행사들을 공유하였으며, 가끔 공동체 행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선물도 회사하였다. 따라서 회사도시의 운영은 노동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관계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 반면 엄격한 규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멕시코시티의 경우와 같이 섬유공장이 도회지의 중심부내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들과 비슷하게 자본-노동의 관계를 순수한 물질적인 관계로 파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25) 괴면접자들 가운데 어는 전직 철도 노동자(Zenon Reyes : 2)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빈곤을 외국인 들에 특혜를 베푸는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디아스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모든 멕시코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멕시코인들의 빈곤은 국도의 수준까지 달하게 되었다고 하여 디아스 정부를 비난하였다.

26)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형성을 저해한 요인으로는 온정주의적 주종관계 이외에도 높은 문맹률과 높은 이직률을 꼽을 수 있겠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남성들의 문자해독률은 전국의 평균을 월씬 상회할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에는 44%, 1910년에는 55%에 불과하였다. 산업노동자들의 문자해독률은 대략 25% 내지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Anderson, 1976 : 198).

27) 그렇다고하여 철도 노동자들이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온정주의적 주종관계가 작업조직 자체에 내재하여 있지는 않았을지도, 민족차별의 와중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갈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승진과 직업기회를 위하여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를 이용하여 보고자 그에 의지하는 철도노동자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철도노동자(Jose Luna, 1961 : 4-5)는 “나는 높은 분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으므로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바, 이 파업이란 1909년 철도산업으로부터 외국인들을 추방시키고자 시도된 파업을 의미한다. 그의 눈에는 외국인들이 매우 공정하고 선량하게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1909년의 파업이 성공하게 되자 철도회사를 사직하고 그의 영국인 상사를 따라서 어느 제련소로 옮겨갔다.

작업조건과 노동통제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관련하여 보면, 섬유노동자들이나 철도노동자들은 비교적 안락한 작업환경에 처한 장인노동자들 보다 불만의 분출 가능성성이 훨씬 더 높았다. 온정주의적 주종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장인노동자들은 산업생산에 의한 장인부문의 대체의 추세에 저항하느라 안간힘을 쓸고 있었다. 게다가 장인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로 이행하지 않고 상호부조회 형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인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을 조직함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멕시코 노동자를 가운데에서 가장 덜 의식화된 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디아스 시대의 멕시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의 산업부문간 편차.

계급의식 측면들	장인부문	섬유산업	철도산업
불 만 수 준	낮 음	높 음	중 간 음
작 업 조 건	낮 음	중 간	높 음
민 족 차 별	낮 음	높 음	높 음
외 국 감 독 반 감	낮 음	높 음	높 음
평 균	낮 음	높 음	높 음
온 정 적 주 종 관 계	높 음	중 간	낮 음
조 직 유 형	상호부조	노동조합	노동조합

섬유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은 생산내 관계에서의 전제적 지배 양식의 베풀목 역할을 하고 있던 감독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의 측면에서 장인노동자들에 비하여 더 선진적인 부문이었다. 또한 그들의 계급적대감이 민족적 적대감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존재가 잔혹한 노동통제 체계를 더욱 생생하게 가시화하고 있는 한 그들의 계급적대감은 섬유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을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직 비교적 생경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들 하에서 높은 수준의 계급적대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당시의 멕시코의 섬유노동자들의 계급형성에 있어 가장 가시적인 장해요인은 철도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섬유산업에 온존하여 있는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온정주의적 주종관계가 생산체계의 구조 내에 내재하여 있었으므로, 그 존속의 뿌리는 그만큼 단단하였다. 한편 숙련방직공과 조수의 관계에 바탕한 작업조직과 성과급제가 지속하는 한, 회사도시가 존속하는 한, 멕시코의 섬유노동자들의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하겠다.

## (3) 노동자 동원

## 〈파업의 추세〉

저임금과 거칠은 노동통제는 노동자들의 양대 불만 요인을 구성하였고, 민족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파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Anderson, 1976 : 88-93 ; Ramos-Escandón, 1981 : 98-99). 1880년대 말까지 파업의 가장 대중적인 원인인 저임금 문제는 1890년대와 그 이후 거칠은 노동통제와 민족차별의 문제들에 밀리게 되었다.

디아스 정권의 철권정치 하에서 거의 모든 파업들은 몇몇 고립된 경우 약간의 임금 인상을 가져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패로 끝났었다(Shabot, 1982 : 45-46 ; Anderson, 1976 : 88-93 ; Archard, 1984 : 157). 디아스 정부는 파업을 진압하기 위하여 무장군대를 파견하는 일이 많았으며,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 조직체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대량검거와 조직해체의 명령을 내리기 일쑤였다. 이렇듯 국가가 확고하게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으며 파업이 대부분 실패나 조직해체로 끝나게 되는 상황하에서, 파업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동원이라기 보다는 고립된 불만의 자연발생적 표출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하겠다.

〈표 3〉에서 보듯이 1880년대 초부터 파업은 눈에 띄게 증가하여 갔다. 연평균 파업의 숫자가 1865년과 1879년 사이에는 2회 미만이었으나, 1880년부터 1905년까지 연평균 파업의 숫자는 5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파업의 숫자는 디아스 통치 말년에 가면 급증하여, 190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1회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다. 어느해 보다도 가장 파업이 치열하였던 해는 1906년과 1907년으로서 두해 동안 파업은 62회나 발생하였다. 사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유혈적인 두개의 파업들, 즉 카나네아(Cananea) 광산노동자들의 파업과 리오 블랑꼬 파업이 바로 이 두해 동안에 발발하였다. 이 기간은 철도산업에서도 가장 전투적인 파업이 UMM에 의하여 도발되기도 하였다. UMM의 파업과 리오 블랑꼬 파업은 노동조합 투쟁의 개막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잘 조직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디아스 시대의 파업의 전형적인 역학을 잘 대변한다. 이하에

〈표 3〉 멕시코의 산업별 파업, 1865-1911.

	총 계	섬 유	철 도
1865-1879	25	16	0
1880-1889	55	25	2
1890-1899	45	20	11
1900-1905	29	10	12
1906-1911	117	76	11

자료 : Anderson(1976:330-333)

서는 이 두개의 파업을 중첩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 〈1906 UMM 파업〉

1906년의 UMM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파업이었다. 임금인상의 문제가 이전의 파업들을 주도하였던 데 반하여 1906년 UMM 파업은 임금인상의 문제가 요구조건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이전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는 구별된다. 1906년 UMM 파업의 우선적인 두가지 요구조건<sup>28</sup>은 철도회사들에 대항하여 UMM이 철도노동자들을 대표할 권한의 요구와 미국 노동자들과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등한 대우의 요구였다(Shabot, 1982 : 73-84 ; Woldenberg, 1979 : 246-247 ; Gill, 1977 : 55-56). 이러한 두가지 요구조건들에서 UMM은 당시 동일 직급의 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최소한 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었다.<sup>29</sup> 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권의 문제는 통상적인 개별 노동자 단위의 계약 관례에 대항하여 노동조합 주도의 단체협약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상호부조회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다.

치와와주(Chihuahua)의 UMM 본부는 산하의 모든 지부들과 부문들(branches and sections)에 회람을 돌리고, 회사가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거절한 다음 연방군대의 즉각적인 파견에도 불구하고 1906년 7월 27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UMM의 각 지부와 부문은 자체내의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 본부에 자신들의 결정을 통고하였다. 치와와주 밖의 지부들과 UMM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sup>30</sup> 파업참여자들은 처음에는 1500명의 기계공들로만 시작하였으나 8월 중순에는 4,500명 정도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확산되었다(Shabot, 1982 : 74-78, 113 ; Anderson, 1976 : 117).

그러나 UMM 파업의 결정적인 한계는 UMM 지도자들의 디아스 면담과 이후의 파업의 급작스런 종결이었다(Shabot, 1982 : 91-97 ; Gill, 1977 : 57-58 ; Woldenberg, 1979 : 245).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UMM 지도자들은 당시의 대부분의 파업들의 경우 지도자들이 시도하였던 바와 똑같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디아스를 두차례나 면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디아스의 반응은 파업 노동자들은 규약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과 멕시코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할 절실한 필요에 있다는 것이었다. 디아스와의 두번째 면담이 있은 다음 UMM은 주요한 양보를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파업을 종

28 이 두가지 문제들 이외에도 동 파업은 직능집단 식의 요구조건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예컨대 UMM은 네명의 기계공을 단위로 조수 한명을 할당하여 졸 것과 조수들이나 막노동꾼들(peons)이 기계공의 직위로 승진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요구하였다.

29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디아스 통치기간 동안의 철도노동자들의 또 다른 주요한 파업, 즉 1908년의 GLMEF 파업의 핵심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었다(Gill, 1977 : 58-60 ; Shabot, 1982 : 143-144).

30 UMM파업의 요구조건들은 철도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배에 대한 적대감을 공유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결과로 파업 노동자들은 상당수의 상인들이나 농민들로부터도 금전이나 상품의 지원을 받았다(Gill, 1977 : 57).

결하였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의 대표권 문제에 대하여는 완강하였으나 약간의 임금인상과 멕시코 노동자들의 미국노동자들과의 동등한 대우의 문제에 관하여는 구두의 약속을 주었다. 이 파업의 전반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 승리의 축하연에서 “대통령 디아스 만세(Viva President Díaz)”를 외쳐댔다. 결국 UMM이 당시의 대부분의 노동자 조직체들이 그러하였듯이 디아스의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디아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MM은 노동조합 투쟁의 시기를 열었다는 점과 이 파업의 과정에서 멕시코 철도노동자들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리오 블랑꼬 파업, 1906-1907〉

섬유산업에서 리오 블랑꼬 파업은 계급형성의 노정(자본계급은 CIM으로 노동계급은 GCOL로)에 있는 양대 계급의 충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리오 블랑꼬 파업은 1906년 12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1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파업은 당시 자본가들과 섬유 노동자들이 푸에블라주, 베라크루스주와 트拉斯칼라주를 포함하는 세개 주들에서 계급간의 대립을 가속화하고 있던 끝에 발발하였다.

1907년 10월 세주들의 GCOL의 섬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별금제에 반발하여 일련의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당시 GCOL은 자체의 파업기금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취임한 GCOL의 의장인 모랄레스(Morales)는 11월 10일 자본가들과의 아무 합의도 끌어내지 못하고 파업노동자들로 하여금 직무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모랄레스를 투표를 통하여 축출한 다음 급진파인 친-PLM 라미레즈(Ramirez)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Anderson, 1976 : 130-134).

한편 섬유자본가들은 일련의 파업의 와중에서 CIM으로 조직되었고, 그후 11월 중순께 새로운 직무규칙들을 선포하고 이를 모든 공장들에 강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직무규칙들은 노동자들을 엄격한 감시하에 예속시키고, 근래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GCOL을 해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이 직무규칙들은 하루 14시간의 노동, 기계·기구의 훠손과 불량품에 대한 별금제, 작업장에서의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의 금지, 회사주택에 대한 방문자들의 허가제, 질서를 문란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진의 해고의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Anderson, 1976 : 138-139 ; Walker, 1981 : 281-282).

그러나 푸에블라주에서는 12월 4일 30여개 섬유공장에서 노동자들 6-7 천명이 새로운 직무규칙들에 반발하여, 특히 작업장에서 신문 읽는 것에 대한 금지와 회사주택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허가제에 반발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다음날에는 트拉斯칼라주에서 십여개의 섬유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담함으로써 파업은 푸에블라주를 넘어서 타주들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GCOL은 2천 여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자본가들이 강요하는 직무규칙들에 대안적인 직무규칙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GCOL은 대통령과 푸에블라주와 트拉斯칼라주의 주지사들에게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디아스는 중재의 요청을 수락하였다(Anderson, 1976 : 140-144 ; Walker, 1981 : 282).

하지만 자본가 조직체인 CIM은 디아스의 중재를 거부하고 12월 24일 전국적인 쟁탈전을 결행하였다(Anderson, 1976 : 140-148 ; Walker, 1981 : 281-283). CIM의 명령에 따라 멕시코의 150개 섬유공장들 가운데 93개가 폐쇄되었으며, 조업을 지속하고 있던 공장들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을 뿐이었다. 결국 3만 여명의 섬유노동자들이 일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며, 이때 자본가들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GCOL의 파괴에 있었다. 소강상태는 그해 마지막 날 CIM이 마침내 대통령의 중재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중재명령(Laudo Presidencial)은 1907년 1월 6일에 발표되었으나 파업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조건들 중 어느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Malpica, 1985b : 177 ; Walker, 1981 : 283-284 ; Anderson, 1976 : 153). 대통령 중재명령은 회사직영상점이나 회사권(company scrips)의 어느 것도 금지하지 않았고 기계·기구의 해손에 대한 벌금제도 폐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신문 읽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주택에 손님을 맞는 것을 금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중재명령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신변보호도 보장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작성의 길을 터놓은 직업사의 중서를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니고 다니게 함으로써 GCOL과 소속 노동조합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보호해주게 되었다.

한편 아직껏 GCOL의 의장으로 행세하고 있던 모랄레스가 1월 7일 베라크루스주 리오 블랑꼬에서 일반 노동자 대중의 집회에 나타나 대통령의 중재명령을 제시하였을 때,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중재명령을 거부하였다. 리오 블랑꼬 노동자들은 회사직영상점들과 기타의 회사의 시설물들을 약탈하고 방화하며 “독재자 물러가라, 독재자를 죽여라”고 외쳤다(Anderson, 1976 : 174). 이러한 반-디아스 구호들은 이전의 파업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연방군대들은 즉각 현지로 출동하였고 파업 노동자들을 사살하기 시작하였다. 대량학살의 소식을 전해들은 베라크루스주 밖의 섬유노동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전과 식량을 리오 블랑꼬의 파업노동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트라스칼라주와 멕시코시티에서는 연대파업들이 속발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하지만 리오 블랑꼬 파업은 200여 노동자들의 죽음과 400여 노동자들의 구속을 남긴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Morales Cortés, 1975 ; Fernández Flores, 1975 : 45 ; Anderson, 1976 : 174).

결과적으로 1906년 10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파업투쟁에서 GCOL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호응성을 충분히 과시하였으며, 노동자들은 GCOL 지도부가 호응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 지도부를 개편할 정도의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GCOL과 멕시코 섬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과 싸웠고,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한번도 도전하여 본 적이 없는 권위를 지닌 디아스와도 싸웠던 것이다.

### 〈리오 블랑꼬 파업 이후〉

디아스 통치기간의 노동자들의 투쟁들 가운데 가장 전투적이고 결연하였던 1906-1907년의 파업의 물결은 멕시코 노동계급의 가장 의식높은 부문의 경우에도 계급의식의 성숙에는 최소한 한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의 해소를 위하여 가장 값진 수단으로 국가의 개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파업의

물결이 멕시코 노동계급이 상호부조회의 단계로부터 보다 전투적인 노동조합 조직의 단계로 이행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분명하다. 결국 멕시코 노동자들은 더이상 경제적인 상호부조라는 수동적인 처방으로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을 구현된 것이다(Fernandez, Javer & Robles, 1979 : 362).

1906-1907년 파업의 물결은 개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양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리오 블랑꼬 파업과 카나네아 파업의 소식은 멕시코 전역의 노동자들에게 전파되었고, 용맹스런 노동자들의 투쟁과 국가의 탄압은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가들이나 외국인 감독들 뿐만아니라 국가에 대하여도 대항하게 하였다(Clemente Zúñiga, 1961 : 5-6; Anderson, 1976 : 194-198, 327-328). 역설적으로 파업들은 국가에 대한 자비로운 후원자라는 뿌리깊은 신앙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을지라도, 파업의 효과는 그 이후의 멕시코 노동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항하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1906-1907년 파업의 물결 이후에 멕시코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전투적인 투쟁을 더이상 벌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멕시코 노동자들이 맹종이나 상호부조적인 실천들로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Gamboa Ojeda, 1990 : 80-82; Anderson, 1976 : 213-215). 철도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은 민족차별과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데 반항하였으며 1908년 3월에는 멕시코중앙철도회사(Mexican Central Company)의 전국 철도망을 마비시키기까지 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자본가들이 1907년 대통령 중재명령의 소극적인 양보를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공세를 취하는 동안에도, 섬유 노동자들은 전산업들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로 남아 있었다. 섬유 노동자들은 1908년 상브루노(San Bruno)회사에서 전개된 6개월 간에 걸친 파업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 주었으며, 가끔 노동자들 조직체의 선도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1910년에는 메페뻬회사의 파업 중에는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PLM이 1906-1907년 파업의 물결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자명하나, 파업의 물결 이후에 멕시코 노동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러나 PLM이 파업의 물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명제는 몇몇 학자들(Cockcroft, 1968 : 1983; Hart 1978; Basurto 1981)에 의하여 제시된 아래 널리 믿어져 왔다. 이들에 따르면 PLM은 노동시간, 최저임금제와 기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노동개혁의 프로그램을 초안하였으며 1906년 중반부터 산업노동자들의 지지를 널리 이끌어내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PLM의 활약이 디아스 정권의 붕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까지 주장되고 있다. 반면에 앤더슨(Anderson, 1976 : 121, 202-203, 268-270, 315-317)은 PLM이 1906-1907년의 파업의 물결이 끝날 때 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파업물결 이후에도 PLM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PLM이 파업물결 이후에도 산업지대들과 접촉을 지속하고 있었을지라도 PLM의 지지자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몬테레이(Monterrey) 지방에서 발견된 PLM 후원자들의 한 명단을 보면 51명의 후원자들 중 산업노동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들은 3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밖의 14명 정도가 장인부문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노동자들 내에서의 PLM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은 일련의 무장봉기 시도들이었으며, 이러한 무장봉기 시도들에서조차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장봉기 시도들의 실패는 PLM 구성원들을 점점 더 고갈시켜 갔다. 그 결과 PLM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더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점차 보다 많은 학자들이 앤더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섬에 따라(Knight, 1985a : 1985b ; Benjamin & Ocasio-Meléndez 1984), PLM의 지속적 영향력 문제는 자리를 잊게 되었다.

PLM의 조직적 연계망이 멕시코 노동자들 사이에서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이 PLM의 영향력이나 PLM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동자들의 중언에서 알 수 있듯이 (Fernandez Flores, 1975 : 14, 41-42), 절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멕시코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적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잘 정의된 이데올로기로 접합시킬 것인지를 PLM 기관지인 *Regeneración*으로부터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소결 : 계급형성의 실패

디아스 시대의 급격한 산업화는 수출주도형인 동시에 외국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산업노동자들은 수출관련 산업이나 철도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었으며, 이를 산업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가 주도적인 유형으로 되어 갔다. 한편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디아스 정부는 산업평화를 보장해야 했으며, 노동조건이나 복지조건과 관련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전제적 계급지배 양식이 공장의 안팎을 풍미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이 자본가들의 전횡에 맡겨지게 되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임금과 승진 등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위계적 통제방식 하에서 감독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감독자들은 노동통제를 위하여 물질적 재재수단들과 물리적 제제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독자들의 전제는 특히 구타와 구금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잔혹한 노동통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들의 불만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는 저임금을 포함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잔혹한 노동통제 수단이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차별대우로 인하여 반외국인 감정과 융합되었으며, 잔虐한 노동통제의 주체인 감독자들이 주로 외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데올로기적 형성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단순한 물

질적 불만과 민족적개심의 차원에 머물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높은 직업이동률이나 산업부문들간의 편차 등을 들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정주의적 주종관계의 온존이었다.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는 장인부문에서 특히 심하였으며 철도 부문에서는 비교적 약하였는데, 이처럼 산업별 편차는 있었으나 거의 전 산업에 편재하여 있었다. 비교적 평균 수준의 온정주의적 주종관계를 보여주었던 섬유산업의 경우를 보면, 내부하청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작업조직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감독들 및 자본가들과 온정주의적 호혜관계를 이루어 작업장에서의 불만을 계급적대감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회사도시의 존재는 자본가들과 감독들에게 노동자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공유를 통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후원자적 역할조차 행사하게 함으로서 계급적대감의 발달을 저해하였다.

한편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과 관련하여 보면 185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노동자조직체들은 상호부조회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상호부조회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상호부조회들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체들은 탄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상호부조회들의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신규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시도들이 많은 협약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진한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에 더욱 타격을 입힌 것은 1906-7년의 파업몰결이었다. 파업몰결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전개하여 노동조합들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정부의 회유 노력으로 급진적지도부는 세를 잃게되고 PLM의 노동조합들과의 연계도 상당부분 단절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1906-7 파업몰결 이후의 정부의 탄압과 회유는 멕시코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 뿐만 아니라 이태울로기적 형성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어, 멕시코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조돈문

- 1994a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봄호.
- 1994b “일제하 전제적 계급지배와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실패 : 멕시코 디아스시기와의 비교 연구”, 미발표.
- Anderson, Rodney D.  
1974 “Mexica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Revolution, 1906-1911”,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54:1), 94-113.
- 1976 *Outcasts in Their Own Land.: Mexican Industrial Workers, 1906-1911*. DeKalb : Northern Illinois Univ. Press.
- Araujo, Andres

- 1975 *Entrevista con el señor Andres Araujo.* (1975 Tamaulipas) INAH/PHO/1/163.
- 1977 *Entrevista con al Señor Andres Araujo.* CEHSMO/PHO- COM/III-26.
- Archard, Peter  
 1984 "La fábrica textil y la formación de la clase obrera mexicana, 1830-1920", *Boletín del CEMOS : Memoria* (1:7), 149-160.
- Ashby, Joe C.  
 1963 *Organized Labor and the Mexican Revolution under Lazaro Cardenas.*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Ayala, José y José Blanco  
 1981 "El nuevo Estado y la expansión de las manufacturas : México, 1877-1930", in Cordera, Rolando 1981, *Desarrollo y crisis de la economía mexicana : Ensayos de interpretación histórica*, 13-44.
- Barraza, Luciano  
 1969 "The Relevance of the Theory of Sectoral Clashes to the Mexican Economy", *LARR* 4(3), 73-87.
- Basurto, Jorge  
 1981 *El proletariado industrial en México (1850-1930).* Mexico :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Benjamin, Thomas & Marcial Ocasio-Meléndez  
 1984 "Organizing the Memory of Modern Mexico : Porfirian Historiography in Perspective, 1880s-1980s",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64:2).
- Bustamante, L.F.  
 1934 "En la Casa del Obrero Mundial fué organizado el magno contingente de trabajadores de ambos sexos que desfil el PRIMERO de MAYO de 1913, inquietando a la dictadura huertiana", *Revista Todo*, Mayo 1, 1934. Bustamante, L.F. 1934.
- Cardoso, Ciro F.S. y Rrancisco G. Hermosillo  
 1980 "Las clases sociales durante el estado liberal de transición y la dictadura porfirista (1867-1910)", en Cardoso, Hermosillo y Hernández, *La Clase Obrera en la Historia de México, 3. De la dictadura porfirista a los tiempos libertarios.* Mexico : Siglo Veintiuno, 1980, 7-97.
- Casillas Rojas, Ernesto  
 1975 *Entrevista con el señor Ernesto Casillas Rojas.* CEHSMO/PHO-RB/2/6.
- Clark, Majorie Ruth  
 1934 *Organized Labor in Mexico,*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ockcroft, James D.  
 1983 *Mexico : Class Forma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State.* N.Y. : Monthly Review.

- de la Peña, Sergio  
 1975 *La formación del capitalismo en México*. Mexico : Siglo Veintiuno, Estrada Urroz, Rosalina
- 1986 "Nuevas maquinas, menos hombres. La modernización de una empresa textil en Puebla : 'La Covadonga'", in Gamboa, Leticia y Rosalina Estrada 1986, 55-94.
- Fernandez, Jorge, Jorge Jaber y Jorge A. Robles  
 1979 "Alrededor de febrero de 1915 : la COM, los batallones rojos, Atl y las huelgas", in *Memoria del Segundo Coloquio Regional de Historia Obrera*, CEHSMO, 353-472.
- Fernandez Flores, Guillermo  
 1975 *Entrevista con el Señor Guillermo Fernandez Flores*. INAH/PHO-Z/1/122.
- Francois, Marie  
 1991 "Discovering the Women of Rio Blanco : interpreting industrialization,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al economy from a gender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XVI International Congress, April 6, 1991, Washington D.C., 1-15.
- French, William E.  
 1989 "Business as Usual : Mexico North Western Railway Managers Confront the Mexican Revolution",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5:2), 221-238.
- Freyre Rubio, Javier  
 1985 *Las organizaciones sindicales, obreras y burocráticas contemporáneas en México*. Mexico : CECSA.
- Gamboa Ojeda, Leticia  
 1985 *Los empresarios de ayer : el grupo dominante en la industria textil de Puebla, 1906-1929*. Mexico : Universidad Autónoma de Puebla.
- 1990 "Dos aspectos de la clase obrera textil de Atlixco a fines del porfiriato", *Historias* #23 Octubre 1989-Marzo 1990, 55-65.
- Garcia Marquina, Elvira  
 1976 *Entrevista con la Señora Elvira Garcia Marquina*. CEHSMO/PHO-COM/1.9. Enero 9, 1976.
- Gasca, Celestino  
 1975a *Entrevista con el general Celestino Gasca*. CEHSMO/PHO-COM/III-1.1. Abril 15, 1975.
- 1975b *Entrevista con el general Celestino Gasca*. CEHSMO/PHO-COM/III-1.2. Octubre 30, 1975.
- Gill, Mario  
 1977 *Los ferrocarrileros*. Mexico : Editorial Extemporáneos, Nora.
- 1982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 Princeton

- University.
- Hart, John M.
- 1978 "The urban working class and the Mexican Revolution : the case of the Casa del Obrero Mundial",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58:1), 1-20.
- Katz, Friedrich
- 1974 "Labor Conditions on Haciendas in Porfirian Mexico : some trends and tendencies",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3) (August).
- Knight, Alan
- 1986a *The Mexican Revolution, I.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 1986b *The Mexican Revolution, II. Counter-revolution and Reconstruction*.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 LaFrance, David G.
- 1986 "Francisco I. Madero and the 1911 interim governorship in Puebla", *Americas* (42: 3), 311-331.
- Leal, Juan Felipe
- 1985 *AGRUPACIONES Y BURECRACIAS SINDICALES EN MÉXICO: 1906/1938*. Mexico : Editorial Terra Nova, S.A.
- Leal, Juan Felipe
- 1987 *LA BURGUESÍA Y EL ESTADO MEXICANO*. Mexico : Ediciones El Caballito.
- Leal, Juan Felipe
- 1988 "Estructura y composición de los trabajadores de la industria", en Leal, Juan Felipe y José Villaseñor 1988, 7-96.
- Leal, Juan Felipe y Antonio Gálvez Guzzy
- 1975 "Grupos empresariales : en los ferrocarriles mexicanos : el consorcio southern pacific-union pacific (1880-1914)", *Revista Mexicana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82, Octubre-diciembre, 71-119.
- Leal, Juan Felipe y José Woldenberg
- 1980 *LA CLASE OBRERA EN LA HISTORIA DE MÉXICO, 2. DEL ESTADO LIBERAL A LOS INICIOS DE LA DICTADURA PORFIRISTA*. Mexico : Siglo Veintiuno.
- Luna Lara, Jose
- 1961 *Entrevista con el señor Jose Luna Lara*. 1961, Mexico city INAH/PHO/1/131.
- Malpica, Samuel
- 1985 "Sindicalismo y laborismo en Puebla", *Cuadernos del CIHMO* (2:1).
- 1989 *Atlixco : Historia de la clase obrera*. Mexico : Universidad Autónoma de Puebla.
- Márquez Padilla, Paz Consuelo
- 1986 "Dos obstáculos para la consolidación del Estado en el siglo XIX", in de la Garza,

- Luis Alberto y otros 1986, 77-84.
- Meyers, Michael C. and William L. Sherman  
1983 *The Course of Mexican History*. Oxford : Oxford University.
- Michaels, Albert L. & Marvin Bernstein  
1976 "The Modernization of the Old Order : Organization of the Old Order : Organization and Periodization of Twentieth-Century Mexican History", in Wilkie, Meyer & Wilkie (eds), *Contemporary Mexico*. Monroy Ramírez, Esteben
- 1977 *Entrevista con el señor Esteben Monroy Ramírez* CEHSMO/PHO-COM/III/28.
- Mora Valades, Rafael  
1973 *Entrevista con el señor Rafael Mora Valades*. 1973, Mexico city INAH/PHO/1/103.
- Morales Cortés, Aurelio  
1975 *Entrevista con el Señor Aurelio Morales Cortés*. CEHSMO/PHO-RB/2/12.
- Muñoz Pavon, Jose Guadalupe  
1976 *Entrevista con el señor Jose Guadalupe Muñoz Pavon*. 1976 Tlaxcala INAH/PHO /1/178.
- Oñate, Santiago  
1985 "Administración de justicia y composición de conflictos laborales", en Bensusan, Graciela y otros 1985, 73-118.
- Orozco Nuñez, Emanuel  
1987 "La comuna de Atlixco : la comunidad sindical, competición e interacción de sus campos sociales integradores", tesis, departamento de antropología social,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Plantel Iztapalapa.
- Pérez Linares, Facundo  
1988 "Los días que fueron nuestros", in Dirección General de Culturas Populares de la SEP (ed.) 1988, 105-119.
- Radkau, Verena  
1984 "*La fama* y la vida : una fábrica y sus obreras". Mexico : Centro de Investigaciones y Estudios Superiores en Antropología Social.
- Ramos-Escandón, Carmen  
1981 "Working Class Formation and the Mexican Textile Industry : 1880-1912", Department of Hist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h.D. dissertation.
- Randall, Robert W.  
1985 "Mexico's pre-revolutionary reckoning with railroads", *Americas* (42:1), 1-28.
- Reyes, Candelario  
1978 *Entrevista con el ingeniero Candelario Reyes*. 1978 Tlaxcala INAH/PHO/1/217.
- Reynolds, Clark W.  
1970 *The Mexican Economy : Twenty-century structure and growth*. New Haven : Yale

- Univ.
- Richmond, Douglas W.
- 1987 "Nationalism and class conflict in Mexico, 1910-1920", *Americas*, (43:3), 279-303.
- Rodriguez Bron, Roberto
- 1977 *Entrevista con el señor Roberto Rodriguez Bron*. CEHSMO/PHO-COM/III/29.  
Mexico city, 1977.
- Shabot, Esther
- 1982 *Los orígenes del sindicalismo ferrocarrilero*. Mexico : Ediciones El Caballito.
- Shafer, Robert Jones
- 1973 *Mexican Business Organizations : History and Analysis*. N.Y. : Syracuse Univ.
- Story, Dale
- 1986 *Industry, the State, and Public Policy in Mexico*. Austin : U. of Texas.
- Torres, Esther
- 1975 *Entrevista con la señora Esther Torres viuda de Morales*. INAH/PHO/1/145.  
Febrero 13, 1975.
- Torres, Ignacia
- 1977 *Entrevista con la Señora Ignacia Torres Viuda de Alvarez*. CEHSMO/PHO-COM/III/31. Agosto 1, 1977.
- Torres Ocotilla, Tomas
- 1975 *Entrevista con el señor Tomas Torres Ocotilla*. 1975, Tlaxcala INAH/PHO/1/169.
- Trejo Morales, Leopoldo \
- 1976 *Entrevista con el señor Leopoldo Trejo Morales*. 1976 Tlaxcala INAH/PHO/1/181.
- Turner, John Kenneth
- 1969 *Barbarous Mexico*. Austin : University of Texas.
- Villarreal, Rene
- 1977 "The Policy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1929-75", In Reyna and Weinart (ed.), *Authoritarianism in Mexico*.
- Walker, David W.
- 1981 "Porfirian Labor Politics : Working class organizations in Mexico city and Porfirio Diaz, 1876-1902", *Americas* (37:3), 257-289.
- Woldenberg, Jose
- 1979 "La huelga de la union de mecanicos mexicanos 1912-1913", Memoria del Segundo Coloquio Regional de Historia Obrera, CEHAMO.
- Zuñinga Tovar, Clemente
- 1961 *Entrevista con el señor Clemente Zuñinga Tovar*. 1961, Mexico city INAH/PHO /1/89.

## The Mexican Working Class under the Díaz Dictatorship

Don Moon Cho

Mexico had gone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under Díaz. During this period, wage-laborer were massively formed in such industries as export-related industries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hile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promoted to the level of predominance. In order to host foreign capital, the Díaz government resorted to the despotic mode of class domination to secure industrial peace. Without leg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the capitalists set the terms of labor conditions at will and exercised the despotic mode of class domination on the shopfloor.

What mexican workers experienced under the despotic mode of class domination without legal protection were coarse labor conditions and tough labor control. Coarse working conditions were consisted of low wages and long work day above all, and tough labor control measures deployed by the omnipotent supervisors included not only material sanctions such as fines and discounts but also physical sanctions such as assaulting and confining. These coarse working conditions and tough labor control measures constituted the core of worker grievances. In addition to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xican workers in favor of foreign workers made mexican workers to express their grievances in the form of hostility against foreign supervisors.

However high the level of worker grievances was, worker grievances failed to lead to working class formation. The Díaz government exerted repression over the union-type worker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rather permissive to the mutual-aid societies. Furthermore, the escalated state repression after the 1907-8 strike wave reinforced the failure of organizational formation of the mexican working class. Ideological formation of the mexican working class was hampered by the prevalence of patronistic capital-labor relationship. In the textile industry for example, the persistence of internal subcontracting and the existence of company towns contributed to the reproduction of patronistic relationship.

조돈문, 성심여대 사회학과 교수

주소 : (422-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Tel : 032-650-3265(O), 783-6142(H)